



지역 소식

한국을 방문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방문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1984년에 사도로 부름 받은 옥스 장로는 힘 있는 목소리와 영감 어린 말씀으로 유독 한국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옥스 장로 또한 한국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고 현재는 칠십인 제일정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홀스트롬 장로도 함께 했다. 옥스 장로는 서울 경인 지역의 지도자들과 모임을 갖고, 스테이크 대회와 한국 서울 복합 스테이크 회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한국을 떠났다.

20 10년 2월 7일에 있었던 '십이사도 정원회 옥스 장로님과 함께하는 한국 서울 복합 스테이크 회원 모임'은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많은 회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해 서울 서 선교부 지역은 영등포 와드에서, 그리고 서울 선교부 지역은 신당 와드에서 각각 모임을 가졌다. 신당 와드에 모인 회원들은 영등포 와드에서 촬영한 화면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이날 모임에는 영등포 와드에 천 사백 명, 신당 와드에 천 명 가까운 회원들이 참석했다. 영등포 와드는 예배실과 활동실은 물론이고 2층에 있는 공과 교실까지 가득 찼으며, 신당 와드는 지하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님의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회원들의 뜨거운 신앙은 연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모임은 서울 영동 스테이크 합창단이 부른 "예수께 오라"로 시작됐다. 연단으로도 모자라 단상 바로 앞까지 자리했던 합창단은 그 수만큼이나 웅장하고 힘찬 합창을 선사했다. 합창이 끝난 뒤에는 오희근 장로를 시작으로 여러 연사들이 말씀을 전했다.

오희근 장로

지역 칠십인인 오희근 장로는 제일

먼저 연단에 서서 예언적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했다. 예언적 우선순위를 제일회장단에서 강조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첫째, 개인의 신앙을 강화하고 둘째, 가족을 강화하고 셋째, 신앙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라고 오희근 장로는 설명했다. 오희근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예언적 우선순위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을 균형 잡힌 노력이라고 합니다." 오 장로는 모든 회원들이 이러한 균형 잡힌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하며 니파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다음의 말씀을 인용했다. "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3니파이 12:48) 오희근 장로는 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생활할 때 "현세적,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말하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구본경 자매

오희근 장로의 뒤를 이어 연단에 선 구본경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은 그분의 모순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라는, 지난 연차 대회에서의 옥스 장로의 말씀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구본경 자매는 아들에 얽힌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구 자매는 주님께 필요하다면 시련을 주셔서라도 아들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아들이 주저앉지는 않을지, 힘들어 하지는 않을지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도 후에 내내 두려움 마음을 가졌다고 구 자매는 고백했다. 하지만 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기꺼이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 기도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들은 시련을 맞았지만, 결국 이겨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구본경 자매는 이렇게 말씀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가까이 간다면 저희의 잘못들을 사하여 주십니다.”

최윤환 장로

“오늘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로 말씀을 시작한 최윤환 장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행할 때 확실히 배울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옥스 장로님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그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종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의 신앙으로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신앙이 없으면 헛된 것이 됩니다.” 또 최윤환 장로는 ‘하나가 될 것’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뜻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옥스 장로님 부부와 홀스트롬 장로님 부부와 하나가 되어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최윤환 장로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신앙과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와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홀스트롬 자매

연단에서 서서 “옥스 장로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한 홀스트롬 자매는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했을 당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때 홀스트롬 자매는 물문경을 가르쳤고, 반원들에게 경전을 읽었는지 읽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자주 물었다. 물문경 세미나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모든 반원들이 물문서를 다 읽었고, 홀스트롬 자매는 이번에도 어떤 것을 느꼈는지 물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전쟁 이야기만 계속 되니까 지겹기도 했어요.”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청년은 “저는 물문경에서 이 물문서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문이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홀스트롬 자매는 이야기를 마치며 회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다. “두 청년이 물문서를 읽었지만 느낀 것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홀스트롬 자매는 그 차이를 경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경전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홀스트롬 자매는 말씀을 마치며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모든 회원들이 경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홀스트롬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며 한국 성도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홀스트롬 장로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라는 인사로 말씀을 시작했다. “십여 년 전 저와 아내는 북아시아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만났던 친구들을 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강화되고 교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홀스트롬 장로는 또한 옥스 장로 부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한 뒤, 교회를 이끄는 열다섯 명의 사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도들은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늘에서 매번 지상에서도 매이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없다면 신권이 있더라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열쇠를 지닌 분들이 계시기에 신권은 질서정연해집니다.” 홀스트롬 장로는 사도들의 열쇠에 대해 설명한 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했다. “이런 모임의 책임은 연사들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임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충분한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좌우됩니다.” 홀스트롬 장로는 뒤이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만약 성신의 느낌을 받게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스트롬 장로는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즉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역할은 앞서 간 신앙의 선배들과 뒤에 올 신앙의 후배들 사이의 연결 고리라는 것이 홀스트롬 장로의 가르침이었다. 홀스트롬 장로는 회원들을 향해, 교회의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 그리고 세 번째 세대와 네 번째 세대까지 각각 손을 들어볼 것을 제안했다. 홀스트롬 장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손을 든 회원들을 보며 “첫 세대가 많이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발전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가 늘어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모든 세대가 연결되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하고, 여러분은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당부의를 말을 전했다. 홀스트롬 장로는 “참으로 충실하고 헌신적인 후기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라는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교회에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옥스 자매

옥스 자매는 자신이 독신 성인으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좌절감에 대해 이야기하며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옥스 자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말씀했다. “저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아픈 어머니나, 불행한 결혼, 또한 경제적인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옥스 자매는 지난밤에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갑자기 다리가 몹시 아팠던 옥스 자매는 옥스 장로를 깨웠고, 옥스 장로는 기도하고 성신께 귀 기울인 뒤 옥스 자매를 축복했다. 옥스



오른쪽 위부터: 공항에서 환영의 꽃다발을 받는 옥스 장로 부부와 홀스트롬 장로 부부.

왼쪽 아래: 한국 서울 복합 스테이크 회원 모임에 참석해서 옥스 장로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회원들.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 된 이날 모임에는 영등포 와드에 천사백 명이, 그리고 신당 와드에는 천 명 가까운 회원들이 참석했다. 영등포 와드는 예배실과 활동실은 물론이고 2층까지 가득 찼으며, 신당 와드에는 지하실까지도 회원들로 가득했다.



자매는 그 축복 후 자신이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신권은 위대합니다.”라고 간증했다. 또한 “저는 이 교회가 사람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는지 간증드립니다.”라고 말씀했다. 옥스 자매는 말씀의 마지막을 한국어로 했다. 수없이 연습한 종이를 들고 읽은 옥스 자매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복음이 회복되었고 물몬경이 번역되었음을 압니다.”

옥스 장로

옥스 자매의 뒤를 이어 마지막 연사인 옥스 장로가 연단에 섰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회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와 다른 건물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시아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유럽에서 오셨으며, 또 어떤 분은 아프리카와 미국에서 오신 것을 알지만, 그 전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옥스 장로는, 물몬경을 읽으면 어머니가 십 달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열네 살 시절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그 당시 옥스 장로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였고, 세상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다. 십 달러는 매우 큰돈이었다. 옥스 장로는 열심히 물몬경을 읽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옥스 장로는 농담을 섞어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에 그때의 물몬경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기사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스 장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했다. “우리가 물몬경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옥스 장로는 마찬가지로 원리를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에도 적용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연사가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스 장로는 다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난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회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35장 ‘군도다 그 기초’의 3절과 4절 가사를 소개했다. 옥스 장로는 특히 보통 때는 잘 부르지 않는 4절의 가사에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나 너를 불러 깊은 물 건너나
슬픔의 강물이 넘치지 못하리
나 너 함께 하고 근심 털어주며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옥스 장로는 이어서 미망인으로 살면서 세 자녀를 키워야 했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머니는 힘들 때마다 니파이후서 2장 2절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했다. “물몬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사이야서 24장 14절에서 주님은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하고 짐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풍량이 일고,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었다는 생각이 들 때,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에 있던 사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옥스 장로는 폭풍우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가 담긴 마가복음 4장 40절을 인용하며 고난의 순간에 주님에게 의지할 것을 권고했다.

옥스 장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부모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인생이 힘들지만, 주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사망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도 전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고 다시 성약을 맺고 그분을 기억하고 책임을 수행한다면,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침례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그분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옥스 장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라는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후 말씀을 마무리했다. ■



2. 한국 지방부가 설립되다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번 호에는 김호직 박사와 주한 미군이라는 주님의 도구를 통해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웠는지, 한국 지역의 헌납과 한국 지방부 설립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한국을 주님의 땅으로

1955년은 격변의 시기였다.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던 한국전쟁의 끝이 휴전이란 이름으로 마무리 된 지 2년. 사람들은 ‘잠시 쉬고 있는’ 이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정국 역시 불안정했다. 치안도 말이 아니었다.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이 탄환처럼 박혀 있던 1955년의 한국은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런 1955년의 한국, 유달리 무더웠던 8월 1일 오후였다. 당시는 외국 민간인의 한국 방문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관리를 맡은 슬로버 대령의 도움으로 방문이 성사될 수 있었다.¹ 한국에 오기 전 스미스 회장은 1955년 7월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선교부를 두 개의 선교부로 나누는 일을 추진했다. 북극동 선교부와 남극동 선교부가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은 북극동 선교부에 속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한국에도 선교사가

파견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호직 박사를 포함한 한국의 성도들은 불안한 한국의 정세를 알기에 선부른 희망을 가지는 대신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전쟁의 상처로 폐허처럼 변한 도시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복음을 향한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됐다. 회원 수는 늘어났고, 미군과 함께하는 모임은 점점 활성화되었다. 김호직 박사는 한국인 성도들의 구심점이자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다. 한국인 성도들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김호직 박사의 통역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와중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역사적인 방문이 있었던 것이다.

스미스 회장은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버는 제이 톱톤 대위에게 알아보도록 요청했다. 돌아온 대답은 비관적이었다. 아직까지 한국은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스미스 회장은 그런 보고를 가슴에 품은 채 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8월 2일, 오전과 오후에 육군 예배당에서 있었던 서울 대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임을 감리하고 숙소로 돌아온 스미스 회장은 함께 있던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받은 영감을 이렇게 밝혔다.



왼쪽 위: 1955년 당시의 서울 전경. 오른쪽 위, 왼쪽 아래: 1955년 8월 2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전물장병을 기리는 추모시설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서서 한국을 축복하는 헌납식을 가졌다.

“우리가 한국 땅을 헌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한 마디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의외의 결과이기도 했고, 스미스 회장의 음성이 영감에 차 있기도 했기에 아무도 다른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곧,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김호직 박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스미스 회장은 숙소 길 건너편에 있던 아름다운 언덕을 가리키며 그곳이 헌납하기에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회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스미스 회장의 뒤를 따라 언덕을 올랐다. 늦은 오후였다. 한여름의 찬란한 태양이 여전히 아름답게 내리쬐고 있었다. 언덕에서는 서울시가 다 내려다 보였다. 스미스 회장은 시내를 굽어보며 한국을 주님의 땅으로 헌납했다. 한국 땅에 다시 안정이 찾아오고 번성할 수 있도록 스미스 회장이 헌납 기도를 하는 동안 사방은 고요했고, 주님의 평안과 영이 가득했다. 1955년 8월 2일, 한국 땅의 역사적인 헌납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한국 지방부 설립

8월 2일의 역사적인 사건은 헌납뿐만이 아니었다. 헌납이 있고난 후 저녁, 스미스 회장은 한국인 회원들만 따로 모아놓고 모임을 가졌다. 이때 한국



교회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한국 성도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회 조직도 없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모임에서 스미스 회장과 로버트슨 북극동 선교부 회장은 한국을 북극동 선교부에 편입시키고 이 땅에 새로운 지방부를 조직했다. 김호직 박사는 초대 지방부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김호직 박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국한 뒤 4년만의 일이었다. 스미스 회장은 미군 지방부와 한국 성도들을 분리하였고, 앞으로 있을 전임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할 것도 지시하였다. 당시 한국인 성도의 수는 60명 정도였다.

스미스 회장은 8월 4일에 부산으로 내려갔다. 복음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진 곳 부산은, 미군과 주축 회원 대부분이 서울로 이동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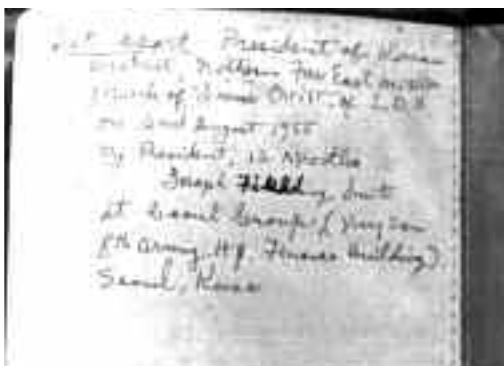
있었고 신앙의 열기 또한 뜨거웠다. 스미스 회장은 부산에서 두 차례의 집회를 감리했다. 그 중 저녁 모임에는 25명의 한국인 성도가 참석했다. 스미스 회장은 이 대회에서 여러 신권 승진을 발표했고, 국영길 형제를 지부 회장으로 한 부산 지부의 설립을 발표했다. 한국 지방부 설립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었다. 일련의 모임과 행사를 거치면서 한국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매우 고무되었다. 한국 성도들은 공식적인 교회 조직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얻게 되었다. 김호직 박사를 비롯해 모든 한국 성도들이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다. 스미스 회장은 역사적이고 특별한 한국 방문을 마치고 8월 5일 오후 3시 55분 일본으로 떠났다. 그가 떠난 후 한국 성도들에게는 큰 책임이 주어졌다. 전임 선교사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 책임이었다. 그리고 헌납된 한국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책임이었다.

한국 땅에 뿌려진 복음의 작은 씨앗들이 1955년 여름, 그 첫 싹을 틔웠다. 바야흐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무수한 기적 같은 일들의 시작이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주

1. “내 양을 먹이라”, 32쪽.



위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과 함께 한 김호직 박사 부부.
아래 왼쪽: 김호직 박사의 지방부 회장 성임 기록.
아래 오른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과 미군, 그리고 한국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라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
특집 기사



전국 특별 신권 지도자 대회

이번 7월에 있을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를 위한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대회 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대회를 이끌어 갈 청년 독신 지도자들의 선발도 마무리 되었다. 지난 2010년 1월 17일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에서는 전국의 모든 신권 지도자들이 모여 청소년 대회를 위한 '특별 신권 지도자 대회'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전국의 스테이크 회장단과 지방부 회장단, 감독과 지부 회장이 참석했고, 북아시아지역 회장인 게리 이스티븐슨 회장이 감리했다. 또한 미국에서 부부 선교사로 봉사 중인 라슨 장로 부부도 참석했다. 라슨 장로 부부는 SMYC의 전문가로 북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이 대회를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SMYC는 북아시아를 제외한 북미와 유럽, 그리고 과테말라 등의 지역에서만 열렸다. SMYC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그 영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북아시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일회장단의 승인 하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이 SMYC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행되게 된 데는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고, 청소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신권 지도자들의 노력이 컸다.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 '전국 특별 신권 지도자 대회'는

직접 대회를 준비하는 실무진들의 발표로 이어졌다.

먼저, 준비위원장으로 부름 받은 서울 영동 스테이크의 김창호 회장이 나와 대회의 준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는 크게 두 조직이 움직이게 된다. 대회 직전까지 시설을 준비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홍보와 여러 가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준비위원회고 대회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다. 김창호 회장은 준비위원장으로서는 신권 지도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몇 가지를 소개했다.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를 돌며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준비시키고 대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 개개인의 영적인 준비는 감독님과 지부 회장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접견하고, 저활동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참석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특히 그들에게 대회의 목적과 이유를 영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은 교회 표준에 맞는 음악과 춤을 샘플로 제작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것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의 두 번째 목적은 청년 독신 성인의 훈련입니다. 약 120명 정도의 청년 독신 성인 고문이 필요한데, 잘 준비된 청년 독신 성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으로 부름 받은 청주 스테이크의 정태걸 회장이 자신의 간증과 함께 SMYC, 즉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의 중요성을 전했다. 정태걸 회장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신의 자녀를 소개하며, "그 자녀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잘 키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자녀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미국 유타에 가서 미국의 교회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난 뒤부터였다. 정태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 회원들의 모범을 보고 돌아와서 제 자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세미나리뿐 아니라 교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YC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변화할 것입니다."

두 위원장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라슨 장로 부부의 훈련이 이어졌다. 라슨 장로는 SMYC가 33년 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 후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라슨 장로는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모임을 갖는 이유는 청소년들을 성전으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원한 우정을 발전시키고, 서로 봉사하며,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대해 더 큰 이해를 얻기 위한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슨 장로는 또한

SMYC에서 사용하게 될 여러 자료들은 경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매우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전 읽기, 기도하기, 복음 공부하기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변의 모임, 가정의 밤, 그리고 댄스파티 등의 활동을 통해 영을 느끼게 됩니다.”

라스 자매는 다른 나라에서의 SMYC에 대해서 소개했다. 2009년 3월에 독일에서 SMYC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이미 4년 째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 번 삼천 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라스 자매는 말했다. 또한 이 SMYC는 내년에는 10개의 모임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스 장로는 마지막으로 일선 신권 지도자들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것을 가르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접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 “청소년 대회에 가기 전에 접견하고 다녀 온 후 다시 접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간증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각 가정의 가정의 밤에서도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권고 할 것을 당부했다.

라스 장로 부부의 뒤를 이어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환 장로가 연단에 섰다. 최윤환 장로는 모사이아서 26장 1절의 말씀,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니라.”를 인용하며 “부모와 조상이

믿었던 것을 자녀들이 믿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최윤환 장로는 이어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영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간증을 전했다. 또한 최 장로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전달 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의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 포스터를 “회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YC에 사용될 음악을 소개하며, “이번 SMYC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표준의 음악을 공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했다. 또한 신권 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이 대회전까지 “이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마지막 연사는 스티븐슨 회장이었다. 스티븐슨 회장은 의미 있는 활동에 청소년들을 참석시켜 그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더 많은 청년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슨 회장은 4명의 자녀들이 포함 13번의 SMYC에 참석했다고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책임은 각 가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도 자녀를 훌륭히 키우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안식일에 청년 청년 반에 들어간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12세 청소년의 75%가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고 나머지 25%는 친구들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17세가 되면 그 영향력이 반대가 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성장할수록 주위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환경이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미디어 등입니다. 우리 주변의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SMYC 또한 긍정적인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스티븐슨 회장은 여타 다른 청소년 대회와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른 청소년 대회에서는 단지 청소년들을 가르치기만 했지만, SMYC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모범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SMYC를 통하여 청년 독신들을 준비시키고, 청소년들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스티븐슨 회장은 SMYC의 프로그램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엘마서 37장 35절의 “.....그러하여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를 인용하며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했다. ■



이 일을 사랑하며

2009년 4월 16일,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님과 함께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대로 구도자와 저활동 회원을 방문하는데 모두들 바쁘거나 집에 있지 않았다. 착잡한 마음에 다음으로 방문할 저활동 회원을 찾고 있는데,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는 자매님을 방문해 도울 일이 없는지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그 자매님은 활동적인 회원이어서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았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 제안에 결국 동의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자매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도울 집안일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하루 종일 선교사가 우리 집에 오길 바랍니다. 내 딸의 비회원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 날이거든요.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싶지만 우리 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선교사들은 바빠서 못 올 거라는 생각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매님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주님이 제 생각과 소망을 들어주실 거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날 비회원인 그 남자친구를 가르쳤고, 놀랍게도 그는 진심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 다음 달인 5월 24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는 교리와 성약 29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한 준비된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성신이 그를 찾도록 우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선교 사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택함 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 받고”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조혜인 자매(현재 플로리다 올랜도 선교부에서 봉사 중)



삼남매의 선교 사업

오빠인 이선기 장로, 동생인 이원기 장로, 그리고 나.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우리는 엘마서 17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그들이 레이만인들의 땅 경계에 도착하였을 때, 주 안에서 그들이 추수의 마감 때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신뢰하며, 각기 헤어져 서로에게서 떠났으니, 이는 그들이 시작한 일이 실로 크다고, 그들이 생각하였음이라.”에 나오는 모사이아의 아들들처럼 서로 만나길 고대하며 각자의 임지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업이 ‘실로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선교 사업을 선택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닻이 되어주신 부모님 때문이었다. 부모님의 훌륭한 가르침과 도움 덕분에 우리 모두 선교 사업을 제일 우선으로 삼았다. 각각 2008년 2월과 2009년 4월, 그리고 2009년 8월부터 선교 사업을 시작해 선교사의 신분으로 잠시나마 같은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다.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매주 서로의 간증과 경험을 나누고 있다. 또한 매일 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편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함께 얼굴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항상 서로의 사랑과 노력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된다.

나는 이 복음을 통해 받은 축복과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에, 이것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나누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오빠와 남동생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우리는 이 축복받은 시간들이 정말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업을 사랑한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이자현 자매(현재 서울 서 선교부에서 봉사 중)



왼쪽부터: 이선기 장로, 이자현 자매, 이원기 장로

“녹차의 유혹을 이겨내고”



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다. 첫 인상은 신기한 것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보통 교회에서는 침례가 아닌 세례를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은 침례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쳤다.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 열심히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아! 이 교회는 무언가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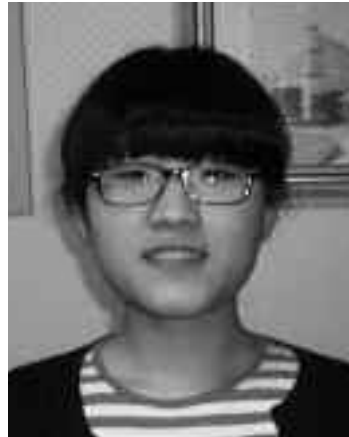
나는 침례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침례를 받겠다는 결심을 했다. 침례를 받기 전에 물문경을 입고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라 경전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 드디어 침례 당일. 많은 교회 회원들이 참석해서 조금 놀랐고 또 기뻐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는 정말 상쾌하고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세상의 찌든 때가 벗겨지는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기도를 했을 때, 나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나는 비교적 쉽게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특히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힘들었다. 뜨거운 여름날 녹차 아이스크림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나는 녹차를 마시지 않기 위해 매일 밤 기도했다. 경전을 읽는 일에 집중했다. 결국 녹차의 유혹을 이겨내고 지혜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침례를 받은 후 나는 꿈에도 그리던 성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성전에 대해서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들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닐까 상상하곤 했는데, 직접 본 성전의 느낌은 그 이상이었다. 나는 성전이 왜 특별한 곳인지 알게 되었다. 성전에서 특별한 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

허동호 형제(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며칠 전, 청년 활동 모임으로 메시지 카드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우리는 각자의 특기를 살리며 각자가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적어 넣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든 것을 나누고 싶었기에 제일 좋아하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적어 넣었다. 조셉 스미스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의 마음에 임했다고 한다. 내가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세미나리에서 야고보서를 배울 당시였다. 중3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 중이었고 시험은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범위가 많았던 터라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하였다.

그날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배우고 암기했다. 나는 이 구절을 읽자마자 마치 내 상황 같다는 생각을 했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내가 공부를 잘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기도를 끝내고 나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시험을 보는 외중에도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우고 또 외웠다. 결국 나는 내가 공부한 분량에 비해 매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예쁜 종이에 옮겨 놓고 꾸민 그 다음 날, 친구에게 메시지 카드를 선물했다. 비록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내가 공부로 힘들어 하던 그때에 위안을 가져다 준 이 구절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
이승미 자매(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속죄

A TONEMENT

영적인 복지, 현세적인 복지 및 영원한 복지의 기본이 되는 것을 생각함에 있어 가장 훌륭한 출발점은 바로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입니다.

속죄의 기본 개념은 어린 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에 속죄는 필수적입니다. 속죄가 없으면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바 될 것입니다. 속죄의 행위에는 주님의 온전한 삶, 갯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중재의 기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포함됩니다. (경전 안내서, 속죄, 147~149쪽 참조)

나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러한 기본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진리를 건성으로 찾는 사람들이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일지라도 만약 무엇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속죄의 깊은 뜻과 그 영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복지(속죄를 통해 우리의 영을 강화시킴)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남은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며, 회원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사랑은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를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성신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을 실천합니다.”(“영원히 지속될 상호부조회의 유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21~125쪽)

이 말씀으로 우리는 속죄를 통해 자애와 사랑, 신앙, 소망, 그 외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들을 계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회개하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싶은 소망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힘, 성신을 느끼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들리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니파이전서 11:33)

현세적인 복지(속죄를 통해 전 세계적인 시련을 극복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전쟁 중에 안전하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어린 네 자녀를 데리고 1,600킬로미터를 걸어서 여행했던 한 젊은 미망인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자녀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중에는 맨손가락으로 언 땅을 파서 아이들을 묻었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묻고 났을 때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신의 도움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는 신앙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제 영혼의 슬픔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분에 대한 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그분이 고통을 겪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그분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에 제 아이들을 다시 보고 그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살고 싶다는 소망이 없지만 가족으로 다시 결합되고 함께 당신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소망을 갖겠나이다.”(“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9~92쪽)

이 자매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경험하는 신체, 재정, 재정, 고용, 결혼, 가족 및 다른 여러 어려움들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감사”로 인해 한 걸음 더 내디딜 힘을 얻습니다. 이는 구주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엘마서 7:11) 당하셨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지(속죄)를 통해 영생을 받음

경전을 깊이 생각하고 구주께서 행하신 속죄 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동안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놀라운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자의 큰 무리가 있더라. 그 곳에 무수히 많은 의인의 영의 무리가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은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의 크신 희생의 본을 따라 희생을 드린 자들이요, 또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으로 환난을 겪은 자들이더라.”(교리와 성약 138:11~14)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 모두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훌륭한 기쁨의 메시지를 받았기에 우리는 우선 얼굴에 웃음을 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교리와 성약 68: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 및 성전 의식과 매일 주시는 성신의 영감을 통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며”(교리와 성약 10:66) 기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한 지식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리처드 지 스코트, “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6쪽 참조) ■

교회 물품 가격 변동

교회 본부에서는 2010년 2월부터 교회 물품에 대한 ‘전 세계 표준 가격(Global Pricing)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표준 가격 정책’이란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교회 물품 가격의 표준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판매하는 교회 서적과 교회 잡지 및 가먼트 등의 교회 물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변동된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교회 본부의 보조를 받아 물품을 제공해 왔다. 회원들이 자주 구매하는 교회 서적, 리아호나, 가먼트 등의 물품 가격이 보조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였다. 이번 ‘전 세계 표준 가격 정책’의 시행에 따라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오르고, 또 일부 품목은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회원들은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가격으로 교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관리 본부 배부 센터에서는 이번 가격 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품을 주문할 때 구매 금액을 미리 송금하지 말고, 주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부 센터로 보낸 후 구매 금액을 확인하고 송금할 것을 제언했다.

각 물품별 정확한 가격 변동 금액과 한국에서의 정책 시행 일자는 한국 교회 공식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3명



김학명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시흥 와드
대전 선교부



정지연 자매
인천 스테이크
담동 와드
대전 선교부



엄명섭 장로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서울 서 선교부